

아시아나항공 ‘노딜’ 현실화되나

침묵 갠 현대산업개발 “거래종결 선행조건 충족안돼”...내달 중순 12주간 재실사 요구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그동안 침묵해오던 HDC현대산업개발이 금호산업 측에 ‘재실사’를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현산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4일 발송한 공문과 관련해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이 중요한 면에서 진실, 정확하지 않고 명백한 허약 위반 등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호산업이 최근 러시아 등 해외에서 기업결합신고가 모두 끝나 인수 선행조건이 마무리됐으니 계약을 종결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현산에 보낸 것에 따른 회신이라고 볼 수 있다.

현산은 금호산업 측에 보낸 이번 공문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정상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최초 의지에 변화가 없음을 재표명함과 동시에 가까운 시일 안에 인수상황 재점검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다음달 중순부터 12주 정도 동안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의 재실사에 나설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실사와 관련해 현산 측은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수계약의

기준이 되는 2019년 반기 재무제표 대비 부채와 차입금이 급증하고 당기순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 ▲올해 들어 큰 규모의 추가자금 차입과 영구전환사채 신규발행이 매수인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된 점 ▲부실 계열사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이 실행된 점 ▲금호티앤아이의 전환사채 상환과 관련해 계열사에 부담이 전가된 점 등을 언급했다.

또 인수상황 재점검 요청사항으로 ▲아시아나항공의 2019 회계연도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점 ▲부채가 2조8000억원 추가 인식되고 1조7000억원 추가차입이 진행되고 있는 점 ▲영구전환사채의 추가발행으로 매수인의 지배력 약화가 예상되는 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관련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와 계열사 간 저금리 차입금 부당지원 문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손실 문제, 포트코리아 런애티트 사모펀드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 등을 언급했다.

현산은 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4월 초부터 지금까지 15차례 정식 공문을 발송해 재점검이 필요한 세부사항을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전달했으나 지금까지 충분한 공식적 자료는 물론 기본적인 계약서조차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7
- 현대산업개발 재실사 제안
- 거래종결 선행조건 충족 여부
- ▲2019년 반기 재무제표 대비 부채·차입금 급증
- 당기순손실 큰 폭 증가
- ▲올해 대규모 추가자금 차입·영구전환사채 신규발행 매수인 사전 동의 없이 진행
- ▲부실 계열사 대규모 자금지원
- ▲금호티앤아이 전환사채 상환 계열사 부담 전가
- 인수상황 재점검 요청 사항
- ▲아시아나항공 2019 회계연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 의견 부적정
- ▲부채 2조8000억 추가 인식·추가 차입 1조7000억
- ▲영구전환사채 추가발행 매수인 지배력 약화
- ▲기내식 관련 계열사 부당지원·계열사 간 저금리 차입금 부당지원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손실, 포트코리아 런애티트 사모펀드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금호·아시아나 측이 지난 14일 일방적으로 거래종결일을 지정해 당 컨소시엄에 통보했다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이 계약해제에 대비한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떤 사전 협의가 있었음에도 금호산업이 당 컨소시엄에 계약해제를 통보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여러 차례 보도됐다”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호·아시아나 측이 거래종결을 위한 노력보다 계약해제를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하고 그동안 이를 위한 준비만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라며 인수상황 재점검 요청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현산이 조건 재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거래종결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계약해제권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현산은 주장했다.

현산은 이와 공문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항공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유지하며 국내외 기업결합신고를 자질없이 진행했고 유상증자, 사채발행 등 인수자금을 예정대로 조달하는 등 인수 절차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하면서 “항후 계약의 이해당사자 사이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진정성 있는 논의가 진행돼 거래가 성공적으로 종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현산이 보낸 공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도 27일 대책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선글라스, 가방에 거세요 2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4층 핸드백 매장에서 선글라스를 가방에 걸 수 있는 ‘로사케이’ 보관 케이스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배달음식 수요 증가에 요식업 상표출원 급증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요식업 관련 상표 출원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요식업 관련 상표 1만217건이 출원돼 지난 한 해 1만994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도 출원이 늘어난 것은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등으로 비대면 배송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서비스업 동향에 따르면 배달음식 등 음식서비스업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5% 급증했다.

한편 지난 5년간(2015~2019년) 요식업 관련 상표 출원건수는 2015년 1만8545건에서 2016년 1만710건, 2017년 1만6652건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 1만7719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해 1만994건(7.8%)으로 정점을 찍었다.

평균 점유율은 개인이 76%로, 법인 24%보다 높았다. /박기용 기자 pboxer@

빛가람지역주택조합 28~31일 코오롱하늘채 동·호수 지정행사

빛가람지역주택조합은 코오롱하늘채 공동주택(아파트·조감도) 동·호수 지정 행사를 오는 28~31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지난 15~18일 예정이었던 아파트 동·호수 지정 행사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나주시와 협의해 2주간 연기해 진행하게 됐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조합은 지난 2018년 6월29일 창립총회를 마치고 202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빛가람혁신도시 인근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일대에 ▲116㎡ 242세대 ▲84㎡ 800세대 ▲59㎡ 425세대 등 1480세대 코오롱하늘채 공동주택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이번 동·호수 지정 행사 일정은 나주시 빛가람동 516-1, 516-2번지에 마련된 홍보관에서 오는 28~31일까지 오전 10시~12시, 오후 13시~15시까지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28일 오전은 59타입과 84타입 각각 1번부터 100번, 오후에는 59타입과 84타입 각각 101번부터 200번까지 진행된다. 29일은 59타입과 84타입으로 오전 각각

201~300번, 오후 59타입은 301번부터 416번, 84타입은 301번부터 400번까지 진행된다.

30일은 오전 84타입 401번부터 500번, 116타입 1번부터 100번까지, 오후엔 84타입 501번부터 661번, 116타입 101번부터 234번까지다.

31일은 2차조합원 84타입에 해당되고, 가입 계약서번호 32001번부터 32127번까지 진행된다.

조합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홍보관 입구에서 안전수칙 안내하고 요원을 배치하는 등 출입자 전원에게 발열체크 및 손소독, 방역물품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홍보관 내 50명 이상 입실을 지키기 위



해 주차장에서 선착순에 따라 차량 안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사전 안내를 통해 지정 시간 30분 전까지 방문하도록 하는 등 혼잡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동·호수 지정일시에 늦을 경우 당일 동·호수 지정이 마감되는 오후 3시 이후 별도로 선착순 추가 동·호수를 지정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상반기 창업 영세업자 카드수수료 505억 환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 및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274만3000개(전체 가맹점의 96%)에 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213만8000개(74.8%)와 매출액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 60만5000개(21.2%)가 우대 수수료를 적용 가맹점으로 선정됐다.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중소 가맹점은 1.3~1.6%다. 수수료가 2% 안팎인 일반 가맹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수료를 우대 효과를 보게 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의 경우 0.5%, 중소 가맹점의 경우 1.0~1.3%를 적용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7일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온라인사업자 93만2000명,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000명도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

■ 로또복권 (제921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5	7	12	22	28	41	1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232,573,405				17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8,504,047				72
3	5개 숫자일치	1,302,123				2,682
4	4개 숫자일치	50,000				129,993
5	3개 숫자일치	5,000				2,101,238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